

# 宗廟와 社稷壇, 圓丘壇 立地の 風水環境

박정해\*

## 차례

- I. 머리말
- II. 宗廟와 社稷, 圓丘壇의 成立과 立地
- III. 宗廟와 社稷, 圓丘壇 立地の 風水環境 分析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역대 왕조는 宗廟와 社稷을 가장 중요한 祭祀의 대상으로 모셨고, 그 시설을 만들고 지키는데도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다양한 제례건축물을 건축하였고 左廟右社의 원칙은 입지선정에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었다.

宗廟와 社稷壇 그리고 圓丘壇의 입지는 형세적 관점과 이기론 관점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형세적 관점의 길지를 선정하였다. 종묘는 비록 국가 제사체계상 社稷의 서열보다 낮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시되었고 풍수적 관점에서도 보다 길지에 입지하고 있다. 반면에 圓丘壇은 조선후기에 건설하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걸맞는 길지에 입지하고 있다.

## 주제어

宗廟, 社稷壇, 圓丘壇, 風水, 立地, 祭禮建築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강사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국의 예제를 수용하여 통치 질서의 방편으로 삼아왔다. 『鶴峯文集』에는 “중묘사직이 무너지면 만백성들이 다 죽을 판”<sup>1)</sup>이라고 하여 중묘와 사직을 국가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중묘와 사직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유교경전의 하나인 『周禮』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역대 왕조는 宗廟와 社稷을 가장 중요한 祭祀의 대상으로 모셨고, 그 시설을 만들고 지키는데도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sup>2)</sup> 특히, 『周禮』「考工記」의 左廟右社의 원칙에 입각한 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요하게 다루었다.

圓丘-方澤-社稷-宗廟으로 이어진 大祀<sup>3)</sup>의 서열은 시대적 상황과 의미부여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당시의 경제상황은, 땅과 곡식을 상징하는 사직단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스스로 제후국이라 규정한 조선은 개성의 사직단에 비해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게 되며, 각종 의식과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물론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형식이나 형태가 바뀐 것은 아니며, 고려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sup>4)</sup> 특히,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중묘는 왕조의 존재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중묘는 대사서열에서 뒤지지만 실제적인 제사의식은 사직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실시되었다. 圓丘壇<sup>5)</sup>은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1) 『鶴峯文集』卷3 「招諭文, 招諭一道士民壬辰 : 宗社之將顛 萬姓之魚爛.

2) 김동욱, 『宗廟와 사직』, 대원사, 2005, 8-9쪽

3) 宗廟, 永寧殿, 圓丘壇, 社稷壇에 지내는 제사를 이른다.

4) 강문식, 이현진, 『宗廟와 사직』, 책과 함께, 2011, 168쪽

5) 명칭의 한자 표기와 독음을 환구단(圓丘壇)과 원구단(圓丘壇)으로 혼용하던 것을 2005년 문화재청에서 한자 표기는 『高宗實錄』에 기록된 ‘圓丘壇’으로, 한글 표기는

수용하고 있던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祭天壇이었다. 조선은 제후국으로서 국가의 의례규정을 제정한 『國朝五禮儀』에서 祭天儀式을 배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선후기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면서, 환구단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묘와 사직단, 환구단은 조선왕조의 존재이유를 상징하는 곳으로 제례시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왕조의 예제를 구성하는 가장 으뜸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왕실 유교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망라하고 있다.

宗廟와 社稷壇, 圜丘壇의 역사적 연원과 역할 그리고 건축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입지는 풍수에 의해 선정되고 좌향이 결정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타 여러 문헌 속에는 매우 소략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입지관이라 할 수 있는 풍수적 관점에서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환구단의 입지를 관련 문헌과 아울러 각종 풍수서를 고찰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宗廟와 社稷壇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환구단은 원형이 훼손되고 조선폰텔이 들어선 관계로, 현재의 상태에서 파악이 가능한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坐向의 測定은 나경패철 4층 地盤正針으로 하였으며, 得水와 水口는 8층 天盤縫針으로 측정하였다.<sup>6)</sup> 主山과 案山の 형상은 楊筠松의 『撼龍經』을 기준으로 九星으로 구분하고, 아울러 『地理人子須知』의 기준에 따라 五行으로 분류하였다.

고종이 제사를 지낸 1897년 10월 당시 『독립신문』을 따라 '환구단'으로 정하였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6) 宗廟는 正殿의 正面 中央에서 社稷壇은 壇의 中央에서 圜丘壇은 단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조선폰텔이 들어선 관계로 皇穹宇의 正面 中央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 II. 宗廟와 社稷, 園丘壇의 成立과 立地

『三國史記』와 『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종묘와 사직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종묘는 『三國史記』에 神文王(?-692) 7년 4월 “祖廟에 대신을 보내어 치제하였다”<sup>7)</sup>는 기록으로 볼 때 이미 종묘와 같은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惠恭王(758-780) 때에 이르러 5묘제도를 수용하는 등 종묘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에 이르러 종묘를 건설하고 있다. 『高麗史』에 따르면 성종 2년(983)에 박사 任老成이 송나라에서 종묘와 사직의 그림과 각각의 記 1권을 가져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른다. 그 후 성종11년(992)에 이르러 제도화되고 종묘를 건설하고 있다. 조선은 1392년 조선이 건국한 직후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종묘와 사직단의 건설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太祖實錄』에 따르면, 태조 1년(1392)에 종묘 지을 자리를 논하고 있으나, 마땅한 곳이 없자 고려의 옛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조선의 종묘를 건설한다.<sup>8)</sup> 그 후 한양으로 천도할 때에 이를 헐어버리고 태조 4년(1396)에 종묘를 완성하게 된다.

종묘는 27대에 걸쳐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어 가장 존중되는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종묘와 사직단이 불에 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簡易文集』 「槐院文錄」에는 “宗廟와 社稷을 다시 세워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그 방위를 정할 적에 옛날에 서있던 그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고쳐야 할 지 반드시 諮問을 구해야만 할 터인데, 그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7) 金富軾 著, 李丙燾 譯,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1990, 158쪽 : 遣大臣於祖廟 至祭.

8) 『太祖實錄』卷2 1년 9월 30일 戊申

알지 못하겠습니다.”<sup>9)</sup>라고 하여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란 끝에 원래의 터에 다시 복원하게 되는데, 수요의 증가는 여러 번의 증축을 필요로 하게 된다.<sup>10)</sup> 이러한 과정은 『宗廟永寧殿增建都監儀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종묘는 조선왕조의 뿌리로서 종묘 제례악과 같은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社壇과 稷壇으로 구성된 사직단은 『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백제는 온조왕 20년(서기 2)에 땅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설치했다고 한다. 고구려는 고국양왕 9년(392) 평양에 국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sup>11)</sup> 그러나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여 어떤 식으로 설치되고 제사의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高麗史』에 따르면, 성종 10년(991)에 사직단을 완성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조선의 경우에는 태조 4년(1395) 1월에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완공된 시점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社稷壇은 大祀 서열에 있어서 종묘에 앞선 제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묘와 달리 각 지방에도 건설하고 있다. 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궁궐보다 종묘(1395년)와 사직단(1395년)을 먼저 건설하고 있는데, 종묘와 사직은 국가를 의미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묘와 사직은 유교문화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地神과 穀食 神을 모신 社稷壇에 祈雨祭를 지낸 기록은 역대 왕조실록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대목이라 할 수 있다.

9) 『簡易文集』卷5 「槐院文錄, 咨宋經略 : 方將再奠廟社 其方位所占 宜因宜革 必有諷焉 而不得其人 臣等計不知所出.

10) 첫 번째 증축은 현종 8년(1668)에 영녕전을 개축하면서 협실을 늘리고 있다. 두 번째 증축은 영조2년(1834)에 종묘와 영녕전을 각각 늘리고 있다. 현재의 종묘의 모습은 1834년 증축된 모습이다.

11) 강문식, 이현진, '앞의 책', 165쪽

유교적 예제건축은 질서가 조영의 기본개념으로 깊숙이 자리<sup>12)</sup>하고 있어, 위계와 질서는 유교건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물론 실천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절대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禮記』「祭法」에 “친자는 七廟를 제후는 五廟<sup>13)</sup>”라고 하여 위계와 질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제천의식은 우리의 오랜 전통<sup>14)</sup>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성종 2년(983) 정월에 시행된 이후 설치와 폐지를 계속 되풀이하다가 조선 초에 제천의례가 억제되자 폐지되었다. 세조 2년(1456)에는 일시적으로 제도화하여 1457년에 환구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세조 10년(1464)에 실시된 제사를 마지막으로 환구단에서의 제사는 중단되었다. 환구단이 다시 설치된 것은 고종 34년(1897) 조선이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부터이다.<sup>15)</sup> 고종은 환구단에서 제천의식을 실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황제국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였으며, 국가 제일의 의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의 1층부터 3층까지 天神과 地神을 비롯한 해·달·별·名山·大川·聖皇·雷·風·雨 등 농경생활과 밀접한 신의 위패를 모시고<sup>16)</sup> 제례를 거행하였다. 환구단을 원구로 표현한 것은 전통적인 ‘圓以象天’이라는 관념에 따라, 하늘을 상징하는 제단의 형태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구단의 입지는 ‘天南地北’의 제도에 따라 선정하는데, 태종 때 慶貞公主(?-1455)의 집터로 자리하다, 宣祖 때 義安君(?-1588)의 新宮이 되면서 南別宮이라 한다. 그 후 李如松(1549-1598)이 주

12)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1996, 24쪽

13) 『禮記』「祭法」: 王 立七廟 諸侯 立五廟.

14) 東濊의 舞天, 三韓의 農耕儀禮, 夫餘의 迎鼓와 같은 고대의 전통 제천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5) 문화재청(<http://www.cha.go.kr>) 검색일 : 2012. 1. 15.

16) 유영남, 「제례건축과 조형 공간적 의미구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41쪽

둔한 이래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곳으로 활용하였다. 광무1년(1897)에 환구단을 건설하였으나, 1913년 일제에 의해 환구단이 헐리고 조선호텔이 건설된다. 현재는 皇穹宇만이 남아 있으며, 환구단의 역사적 사실은 『朝鮮古蹟圖譜』 등을 통해 그 일면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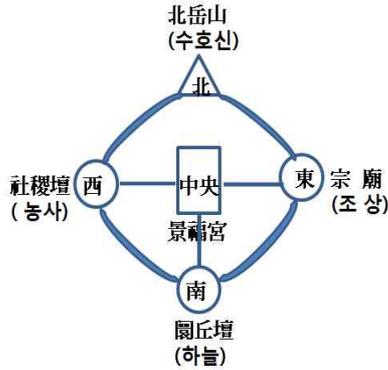
〈그림 1〉 宗廟와 社稷, 圜丘壇의 立地分布  
(출처 : 이원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조선왕조의 길지선호 사상은 확고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풍수는 절대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茶山詩文集』 「策問」에는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는 제도에 있어서도 왼쪽에는 宗廟, 오른쪽에는 社稷을 세우는 이외에 별도로 風水說의利害에 구애받게 되었다.”<sup>17)</sup> 고 하였다. 이때 종묘와 사직단의 입지선정과정을

『太祖實錄』에는 “판문하부사 權仲和·판삼사사 정도전·청성백 심덕부·참찬 문하부사 김주·좌복야 남은·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서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 종략 - 동편 2리쯤 되는 곳에 坎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壬坐丙向에 종묘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바치었다.”<sup>18)</sup> 고 한다. 그 외에도 『宗廟儀軌』에는 “司

17) 丁若鏞, 『茶山詩文集』卷9 「策問」: 建邦設都之割 又於左廟右社之外 別拘風水之利害.

18) 『太祖實錄』卷6, 3년 9월 9일(병오)



〈그림 2〉 祭禮建築 空間構成



〈그림 3〉 황토마루  
(출처 :서울풍수, 140쪽)

左僕射領書雲觀事 權仲和가 새 도읍에 건설할 宗廟, 社稷, 宮, 殿, 朝, 市의 形勢圖를 바치니, 書雲觀 및 風水學人 李陽達·裴尙忠 등에게 명하여 地面의 形세를 살펴보게 하고, 判內侍府事 金師幸에게 명하여 繩[繩]로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sup>19)</sup>고 하여 종묘와 사직단 입지선정에 풍수가 깊이 관여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 외에 『承政院日記』에는 "장례원 경 金奎弘이 삼가 아뢰기를, '신이 영선사 장 李根命과 함께 相地官 吳聖根을 거느리고 圜丘壇을 설치할 장소를 看審하니, 南署 會賢坊 小公洞契의 亥坐巳向의 땅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경계를 정하여 壇을 쌓을 절차를 영선사 낭으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sup>20)</sup>고 하여 환구단도 풍수에 의해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종묘와 사직, 환구단은 〈그림 1〉과 같이 漢北正脈의 精氣를 받은 北岳

19) 『宗廟儀軌』 제2책, 태조2년 2월 을유일(10일).

20)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정유(1897, 광무1) 9월 6일(임진, 양력 10월 1일) 맑음

산을 主山으로, 駱山을 左靑龍으로, 仁王山을 右白虎로 南山을 案山으로 한 서울의 保局안에 입지하고 있다. 비록 같은 보국 안에 입지하고 있지만, 鷹峰과 仁王山 그리고 南山을 主山으로 하여 각각의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황토마루<sup>21)</sup>는 景福宮의 案山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직단의 안산으로서도 視覺的 의미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너른 鐘路의 平地는 종묘와 사직단의 明堂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남산은 서울 保局 안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환구단의 主山과 안산의 역할에도 소홀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종묘와 사직, 환구단의 주산과 案山, 入首龍, 穴, 砂格, 水勢, 坐向 등의 조건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다.

『孟子』「公孫丑章句」에는 “天時가 地利만 못하고 地利가 人和만 못하다”<sup>22)</sup>고 하였다. 이 말은 하늘 → 땅 → 사람으로 연결된 관계성을 제시한 것으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라는 최선의 논리를 통해 하늘의 道와 땅의 道 그리고 사람의 道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묘와 사직, 환구단의 입지구성배경에는 天·地·人 三合思想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반면에 공간구성의 배경에는 음양의 논리가 차지하고 있다. 『說文解字』에는 “魂을 陽氣”라 하고 “魄을 陰氣”<sup>23)</sup>라 하였다. 荀子는 “하늘과 땅이 합해져서 만물이 발생하고 陰과 陽이 만나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sup>24)</sup>고 하였다. 즉, 魂魄을 陰陽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陰陽으로 만물이 발생하고 탄생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 『發微論』「動靜篇」에는 “水는 본

21) 종로구 세종로와 신문로·종로가 갈리는 네거리 남쪽인 세종로사거리에 있던 야트막한 고개로서, 이 고개가 황토로 이루어졌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황토현이라 고도 하였다. (『서울지명사전』, 200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2) 『孟子』「公孫丑章句 下」: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23) 『說文解字』: 魂 陽氣也 魄 陰氣也.

24) 『荀子』「禮論篇」: 天地合而萬物生 陰陽接而變化起.

래 動한 것이니 靜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山은 본래가 靜한 것이니 動하기를 바라는 것<sup>25)</sup>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움직임이 없는 陰의 영역인 山과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물은, 陽으로 분류하여 魂魄의 논리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구성한다. 종묘와 사직, 환구단과 같은 제례건축입지의 자연지형조건과 공간배치에도 陰陽의 논리가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動的인 모델과 不動의 모델이 절묘한 조화 속에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보다 動的인 활동만이 강조되는 현대인들의 편향된 생활공간의 탈출구와도 같은 모델이 되고 있다.

### Ⅲ. 宗廟와 社稷, 圜丘壇 立地の 風水環境 分析

#### 1. 主山과 案山

종묘와 사직단, 환구단은 神聖한 장소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입지의 특성을 대변하는 주산과 안산의 형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산의 형상에 따라 혈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중요건축물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산과 안산의 형상은 길상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 환구단의 주산과 안산은 각각 자신만의 영역에서 특징적인 形狀을 구현하고 있다. 종묘의 주산은 鷹峰으로 武曲 金星體의 형상을 하고 있다. 사직단은 인왕산의 하나의 脈이 솟구쳐 올라 武曲 金星體의 主山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환구단이 입지한 남산은 貪狼 木星體의 형상을 하고 있다.

25) 『發微論』「動靜篇」: 水本動 欲其靜 山本靜 欲其動.

〈표 1〉 主山과 主山の 形狀, 案山

區分	宗廟	社稷壇	園丘壇	備考
主山	鷹峰	仁王山	南山	
主山の 形狀	武曲 金星體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	
案山	右白虎 案山	황토마루	南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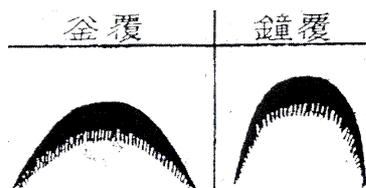
〈그림 4〉  
무곡 금성체의 응봉



〈그림 5〉  
무곡 금성체의 인왕산



〈그림 6〉  
탐랑 목성체의 남산



〈그림 7〉 武曲星- 金  
(출처: 撼龍經·疑龍經比注校補)

武曲 金星體에 대해서 『撼龍經』에는 “武曲의 星峰은 鐘과 釜이니 鐘과 釜의 형으로, 鐘은 높고 釜는 낮으니 서로 같지 아니함에 높은 즉 武가 되고 낮은 즉 輔가 된다.”<sup>26)</sup>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胡舜申은 『地理新法』에서 “武曲은 주로 富를 주관하며 旺氣를 얻어 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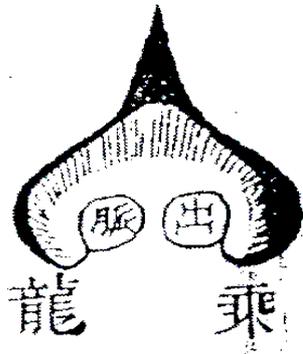
盛하다. 福德, 福龍, 寶曜, 騰雲으로 부르는데, 또한 인간의 壽命을 주관하기도 한다.”<sup>27)</sup>고 하였다. 여기에 『地理人子須知』에서 “金の 體는 둥글고 뽀

26) 楊均松 저, 남궁승 역, 『撼龍經』, 대훈닷컴, 2009, 222쪽 : 武曲星峰覆鐘釜 鐘釜之形有何故 鐘高釜矮事不同 高即爲武矮爲輔.

27) 胡舜申 저, 김두규 역, 『地理新法』卷上, 武曲論, 비봉출판사, 2004, 75쪽 : 武曲主

죽하지 않으며, 금의 성품은 고요하며 동요하지 않는다.<sup>28)</sup> 官星이니 文章, 顯達, 忠正, 貞然<sup>29)</sup>이라고 하였다.

貪狼 木星體를 『撼龍經』에는 “貪狼은 산이 홀연히 솟아 죽순과 같은 봉우리를 만드는데 만약 이것이 몸통은 그대로 이면서 산의 얼굴부분이 한쪽만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하기만 해도 변격 貪狼이 된다. 약간 기울어진 나뭇가지는 한 가지도 같지 않으며, 斜枝는 곁의 山頂이 破面이 되고 뽕족해서 다리가 있으면 乘龍이라 한다. 脚下에서 橫으로 당기면 帶劍이 되어



〈그림 8〉 貪狼星-木  
출처: 撼龍經·疑龍經比注校補

文武 功名이 이에 따라 대별된다.”<sup>30)</sup>고 하였다. 『地理新法』에는 “貪狼은 九星의 우두머리 神으로 옛말에 生氣라고 불렀으며, 또한 生龍이라고도 불렀다. 聰明과 文筆, 人口, 官職과 함께 財와 富, 그리고 孝와 義를 관장한다.”<sup>31)</sup>고 하였다. 『地理人子須知』에서는 “木의 體는 곧고 모나지 않으며 성품은 순하고 가지가 퍼진다.<sup>32)</sup> 文星이니 주는 文章, 科名, 聲譽, 貴顯<sup>33)</sup>이라고 하여 긍정적인 평을 하고 있다.

富 以得旺氣而盛也。故武曲本庫藏之星 世目爲福德 目爲福龍 目爲寶曜 目爲騰雲 而亦主壽。

- 28)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 武陵出版社, 1971, 133쪽 : 金之體回而不尖性靜而不動.
- 29) 徐善繼 徐善述, 『앞의 책』, 130쪽 : 官星 主文章顯達忠正貞烈.
- 30) 楊均松 지, 남궁승 역, 『앞의 책』, 57쪽 : 貪狼頓起筍生峰 若是斜枝便不同 斜枝側頂爲破面 尖而有脚號乘龍 脚下橫拖爲帶劍 文武功名從此辨.
- 31) 胡舜申 지, 김두규 역, 『앞의 책』 『貪狼論』, 75쪽 : 貪狼爲九星魁神 古謂之生氣又謂之生龍主聰明文筆人口官職之事亦主財富孝義.
- 32) 徐善繼 徐善述, 『앞의 책』, 133쪽 : 木之體直而不方木之性順而條暢.
- 33) 徐善繼 徐善述, 『앞의 책』, 130쪽 : 文星 主文章科 名聲譽貴顯.

따라서 宗廟와 社稷, 園丘壇의 주산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神聖한 장소로서의 象徴性과도 부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처에 입지한 건축물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주산의 형상선택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중묘의 案山은 玄武峰에서 分脈한 右白虎자락이고, 사직단의 안산은 황토마루이다. 반면에 回龍顧祖形<sup>34)</sup>의 환구단은 남산을 안산으로 설정하여 절묘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 2. 主龍

主龍은 主山과 혈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주룡을 크게 生龍과 死龍으로 분류한다. 『地理人子須知』에는 生龍을 生龍과 強龍, 進龍, 順龍, 福龍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死龍으로는 死龍과 弱龍, 病龍, 劫龍,



〈그림 9〉 宗廟의 主龍

退龍, 殺龍, 逆龍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이 生龍과 死龍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生龍과 死龍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生龍

34) 회룡고조형이란 용세가 휘감아 돌아서 혈상의 향이 다시 祖宗을 돌아다보면서 생긴 혈이다

35) 박정해, 「조선 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2, 101-102쪽

은 穴을 맺을 수 있으나, 死龍은 穴을 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수에서 주룡의 生死與否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生龍과 死龍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透迤<sup>36)</sup>와 起伏<sup>37)</sup>으로 대표되는 용의 변화무쌍한 모습이다.<sup>38)</sup> 따라서 『發微論』 「生死篇」에는 “움직여 활동하는 것이 生이 되는 것이고 거칠고 굳센 것은 死가 되는 것”<sup>39)</sup>이라 하였다. 종묘와 사직, 환구단의 주룡은 위와 기복하며 활발하게 행동하는 생룡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主龍의 比較分析

區 分	宗廟	社稷壇	圜丘壇	備 考
龍의 分類	順龍	強龍	福龍	모두 生龍에 해당

또한 충분한 행동의 과정을 거쳐 험하고 거친 기운을 벗고 아주 부드럽고 순한 龍으로 脫殺하여 가장 아늑한 기가 멎어서 穴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직단의 입수룡은 군데군데 드러난 바위를 통해 中祖山인 仁王山의 험한 기운을 완전히 탈살하는데 조금은 부족

36) 용이 옆으로 구불구불 구부러진 모양을 말한다.

37) 솟아오르다 낮아지고 하는 변화의 형상을 기복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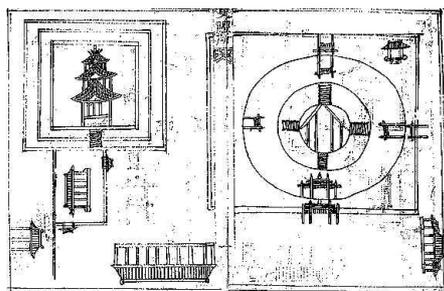
38) 清代의 張鳳藻의 『穿透眞傳』 「序言」에는 “무릇 산은 정한 것으로 혈은 동을 추구하며 동은 양으로 양은 즉 생기(夫山體本靜 故穴宜求動 動屬陽 陽卽生氣)라 하였다. 清代의 孟浩는 『雪心賦正解』에서 “용은 산으로 행동하는데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구르고 회전하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 마치 용과 같아 옛 사람들이 용이라 부른것.(龍者 山之行度 起伏轉折 變化多端 有似于龍 故以龍名之.)”이라 하였다. 그래서 청대의 葉升九는 『山法全書』에서 “용이 무엇인가 하면 산의 맥이다. … 흙이 용의 살이고 돌이 용의 뼈이며 풀은 용의 털(龍者何 山之脈也 … 土乃龍之肉 石乃龍之骨 草乃龍之毛.)”이라고 하였다.

39) 『發微論』 「生死篇」: 活動者爲生 粗硬者爲死

하다. 그래서 <표 2>와 같이 生龍 中에서 強龍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 구단의 입수룡도 주산인 남산에서 出脈하여 行龍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탈살하여 오동통한 福龍의 모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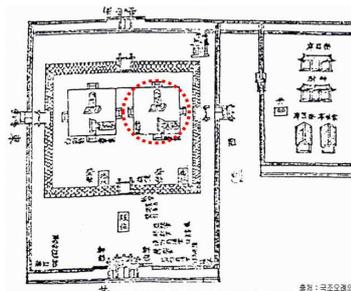
### 3. 穴勢論

正祖는 『弘齋全書』에서 “중묘의 血食이 오래 유지될 계책”<sup>40)</sup>이라는 말로 穴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穴은 합리성의 성취를 위해 다양한 논리와 조건적인 요구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첫째 정확히 혈에 어떤 건축물을 입지시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주산과 혈 형상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혈의 결지 여부를 검증하는 증혈법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大韓禮典의 園丘壇 圖說(藏書閣)  
(출처 : 강병희, 조선의 하늘제사 건축, 4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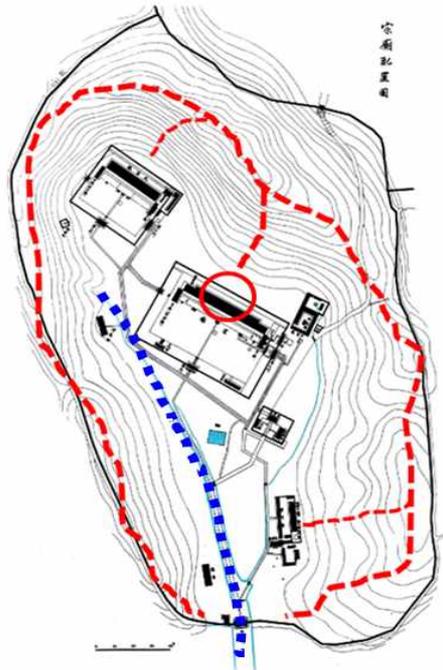


<그림 11> 社稷壇圖

(출처 : 國朝五禮儀)

40) 正祖 『弘齋全書』卷57 「雜著」; 宗廟血食 久遠之計.

첫째, 穴은 풍수의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궁극적으로는 혈처에 중요건축물을 입지시키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혈처에 어떤 건축물을 입지시켰는지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종묘는 正殿을 사직단은 稷壇을 그리고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지내던 환구단이 혈처에 입지한다. 그러나 <그림 9>와 같이 종묘 정전의 주룡이 멈춘 중앙부분만이 혈처에 해당되고 宗廟의 正殿全體가 혈처에 입지할 수는 없다. 社稷壇도 社壇과 稷壇이 모두 혈처에 입지할 수 없으며, 환구단도 역시 하늘에 제사지내는 환구단을 포함한 부속건축물 모두가 혈처에 입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묘는 정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서 역대 왕들의 神主를 차례대로 모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통적인 昭穆制度<sup>41)</sup>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를 『茶山詩文集』 「論」에는 “일찍이 宗廟의 昭穆制度



<그림 12> 宗廟 配置圖(1/5,000)

(출처: 조선고적도보) 추가 작도

41) 昭穆制度는 사당에 神主를 모시는 순서를 말하는데, 『文獻通考』 「宗廟考」에 따르면 天子는 7廟로, 태조를 가운데 모시고, 2세, 4세, 6세는 昭라 하여 왼편에 모시고, 3세, 5세, 7세는 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 3목이 된다. 諸侯는 5廟로 2昭, 2穆이고, 大夫는 3廟로 1昭, 1穆으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항상 配가 된다. 이러한 소목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의 신주는 종묘 정전의 중앙 즉 혈처에 배치되었어야 한다.

를 마음에 두고 논의하지 않았었다”<sup>42)</sup>고 하여 이를 입증시켜준다.

사직단도 동쪽의 사단과 서쪽의 직단을 나누어 배치하고 있는데, 혈처에는 곡식신을 모신 직단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식량의 중요성을 보다 중시하였음을 의미한다. 토지신을 모신 사단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구단은 현재 조선폰텔이 들어선 곳이 혈처에 해당한다. 당초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환구단이 있었던 곳으로 일제의 교활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둘째, 證穴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主山の 형상과 穴의 형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楊筠松은 『疑龍經』「下篇」에서 穴은 主山の 형상에 따라 穴의 형상이 정해져 있고, 主山の 형상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짜 穴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높은 산이나 평지에서나 穴은 主山の 봉우리가 무엇이나에 따라 정해진 이를 보지 않고 어찌 망녕되게 鉗穴이니 乳穴이니 할 수 있겠는가? 穴이 主山の 형상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穴은 결코 가짜 穴이거나 진짜 穴이 아닌 것이다.<sup>43)</sup>

또한, 『撼龍經』「變穴編」과 『疑龍經』「變星編」에는 主山の 형상에 따라 穴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한다. 즉 貪狼星 主山은 乳頭穴을, 巨文星 主山은 鉗釵穴을, 武曲星 主山은 窩穴을, 祿存星 主山은 犁鑿頭穴을, 文曲星 主山은 掌心穴을, 破軍星 主山은 尖槍穴을 맺고 左輔 右弼星 主山은 燕巢穴을

42) 『茶山詩文集』卷12 「論」新羅論, 한국고전종합DB : 未嘗以宗廟昭穆之制而存諸心置諸論議

43) 楊筠松 著, 김두규 역 『撼龍經·疑龍經』「下篇」, 비봉출판사, 2009, 259쪽 : 高低平地隨星 豈肯妄爲鉗乳穴 穴若不隨龍上星 斷然是假不是眞.

맺는다고 한다.<sup>44)</sup> 따라서 <표 5>과 같이 武曲 金星體 主山の 宗廟와 社稷壇은 평지에 입지하여 窩穴에 해당하고, 貪狼 木星體 主山の 圓丘壇은 약간 볼록한 지형에 입지하여 乳頭穴을 맺고 있어 모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3〉 主山の 形狀과 穴 形狀

區分	宗廟	社稷壇	圓丘壇	備考
主山の 形狀	武曲 金星體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	
穴의 形狀	窩穴	窩穴	乳穴	
一致與否	一致	一致	一致	
穴處의 建築物	正殿	社壇과 稷壇	圓丘壇	환구단은 조선호텔이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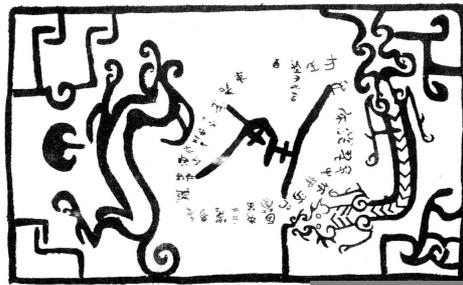
셋째, 穴의 결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證穴法으로 『地理人子須知』에는, 朝山證穴法과 明堂證穴法, 水勢證穴法, 樂山·鬼星證穴法, 龍虎證穴法, 纏護證穴法, 脣氈證穴法, 天心十道證穴法, 分合證穴法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45)</sup> 그 외에도 穴場證穴法이 있다. 이러한 證穴法은 穴을 찾는 穴法 못지않게 중요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穴의 검증을 위해 거치는 확인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묘와 사직단, 환구단의 穴證을 검증해 보면, 종묘와 사직단은 穴의 결지여부를 확인하는 穴場證穴法으로, 환구단은 龍虎의 유정여부를 확인하는 龍虎證穴法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44) 張益鎬 『龍水正經』, 중문사, 1989, 60-61쪽

45) 徐善繼 徐善述 著, 김동규 역, 『地理人子須知』, 명문당, 1992, 448-471쪽 참조

## 4. 靑龍과 白虎 그리고 明堂

『地理要訣』「龍虎論」에는 “眞穴은 용호가 만포하여 유정한 것이고 假穴은 용호가 찬주하여 무정하다”<sup>46)</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룡과 백호는 혈의 좌우에서 혈의 결지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地理人子須知』에는 “용호는 혈을 보호



〈그림 13〉 漆箱蓋面圖象-靑龍과 白虎  
(출처 : 『中國古代風水與建築選址』)

하기 위해 얻어진 이름이니 없어서는 안 되는 것”<sup>47)</sup>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靑龍과 白虎는 穴場을 바람과 물로부터 刑·沖·破·害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穴場에 質量的 生氣를 공급 유지시켜<sup>48)</sup> 건강한 穴場을 보존하게 된다.

〈그림 1〉과 같이 서울은 北岳山과 仁王山 그리고 駱山, 南山으로 구성된 保局이 완벽하여 큰 틀의 관쇄는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큰 틀의 보국이 완벽하다고 해서 각자의 좌청룡과 우백호가 관쇄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크나큰 흠결이 된다. 왜냐하면 보다 가까이 위치한 사격이 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대로 둘러 감싸 주어야 穴의 氣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錦囊經』「貴穴編」에는 “무릇 기가 내뿜어지면 바람이 되는데 능히 생기를 흩어버리니 청룡과 백호는 혈을 호

46) 李龍徽 『地理要訣』「龍虎論」, 소금나무, 2006, 303쪽 : 眞穴則 龍虎彎抱而有情 穴假則 龍虎竄走而無情.

47) 徐善繼 徐善述 著, 김동규 역, 『앞의 책』, 626쪽

48) 孫正高, 『풍수지리해설집』, 신지서원, 2002, 154쪽

위하는데 소용이 있다.”<sup>49)</sup>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白沙集』 「啓辭」에서는 “靑龍과 白虎는 拱揖의 형태”<sup>50)</sup>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갖춘 곳은 宗廟이다. 현무봉과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案山이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늑한 공간을 구성한다. 社稷壇도 좌청룡과 우백호가 가까이에서 환포하여 아늑한 공간을 조성한다. 園丘壇도 주산이 곧 안산인 回龍顧祖形으로 요구조건을 충실히 구비한다.

## 5. 水勢論

『錦囊經』에는 “氣는 물의 근본이니 氣가 있다는 것은 水가 있다는 것”<sup>51)</sup>이라고 하여, 氣와 물을 같은 등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氣를 통해 물의 중요성과 특징 그리고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氣와 물은 陰陽交配라는 絶對絶命의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穴場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과 함께, 穴의 濕度를 유지하고 바람의 발생과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물은 경관작용과 함께 심미가치를 가져 사람과 자연이 화합하고 공존한다는 정신과도 일치한다.<sup>52)</sup> 그 외에 明堂水는 ‘水管財物’이라 하여 실질적인 경제를 의미한다. 종묘와 사직, 환구단의 外明堂 水에 해당하는 淸溪川은 서울의 明堂 水이다. 또한, 중요한 풍수적 의미를 함축한 西出東流하는 모습은 穴場에 충분한 生氣를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東西南北 4방의 제례건축과의 관련성을 통해 가장 특징적인 풍수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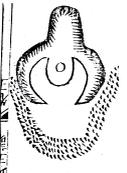
49) 郭璞, 『錦囊經』 「貴穴編」: 夫噫氣爲風 能山生氣 龍虎所以衛區穴.

50) 『白沙別集』卷2 「啓辭」, 山陵審定啓穴, 한국고전종합DB : 龍虎拱揖.

51) 郭璞 著,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83쪽 : 氣者水之母 有氣斯有水.

52) 王其亨 等, 『風水理論研究』 「古城閭中風水格局」, 中國 天津大學出版社, 2005, 71쪽

〈표 6〉 水勢形狀의 五行圖 (출처: 地理人子須知)

區分	木星水	火星水	土星水	金星水	水星水
形狀					

물에 대한 특징을 형세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표 6〉과 같이 木·火·土·金·水 오행으로 분류하는 데, 대체적으로 金星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표 7〉 水勢形狀

區分	宗廟	社稷壇	園丘壇	備考
水勢	木星水	火星水	金星水	

종묘와 사직단, 환구단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어 정확한 물의 형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가능한 부분과 여러 지형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宗廟는 〈그림 12〉와 같이 무정하다 싶게 흐르는 木星水 형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水口에 上池와 中池 그리고 下池를 조성하여 裨補하고 있다. 여기에 假山을 조성하여 남쪽이 허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sup>53)</sup> 먼저 上池는 건립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成宗 代에 그려진 宗廟全圖에 나타나고 있다. 中池는 그 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17세기에

53) 『太宗實錄』卷17, 9년 3월 2일(을사)

그려진 宗廟全圖에 나타나고 있다. 종묘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순조 34년(1834)에 증축된 것으로<sup>54)</sup> 下池는 이때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上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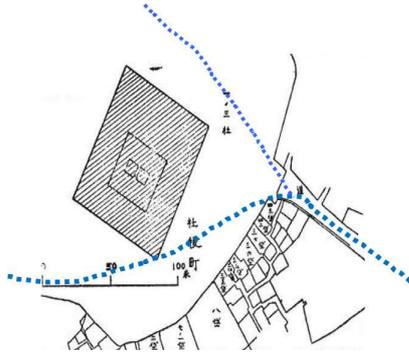


〈그림 15〉 中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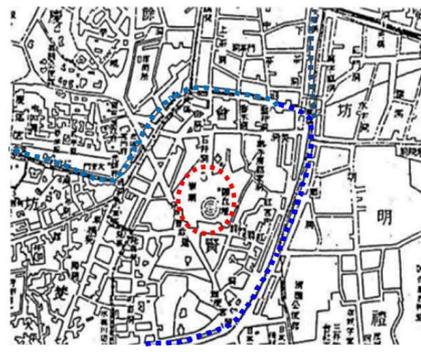


〈그림 16〉 下池

연못의 형상은 『呂氏春秋』에서 “하늘의 도는 둥글고 땅의 도는 각지다(天道圓地道方)”라는 논리에 따라 方池와 圓島를 조성하고 있다.



〈그림 17〉 『조선총독부 관보』 1936년 5월 23일자에 수록된 ‘경성사직단’의 지정구역도 추가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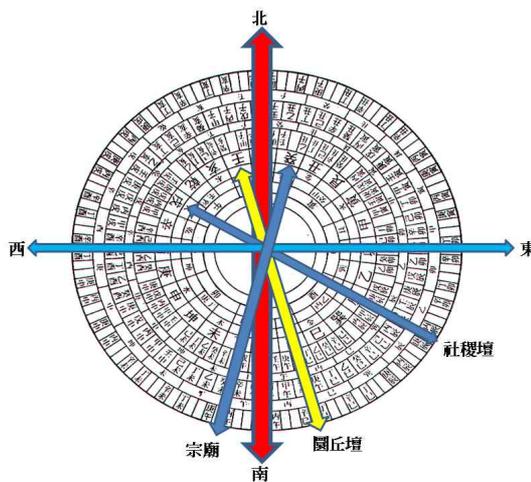
〈그림 18〉 환구단 부분 경성전도, 1903. (출처 : 서울의 옛 지도) 추가 작도

54) 김동욱, ‘앞의 책’, 23-24쪽

〈그림 17〉과 같이 社稷壇도 社壇과 稷壇을 중심으로 양쪽의 물이 무정하게 흘러 앞쪽에서 합수하는 형상으로 火星水의 형상을 하고 있다. 반면에 환구단은 도심지의 개발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그림 18〉과 같이 金星水의 형상을 하고 있다.

### 6. 坐向論

『論語集註大全』「衛靈公」의 “다스리는 자는 … 몸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면하였을 뿐”<sup>55)</sup>이라고 한, 이 말은 조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종묘의 좌향은 고대 중국의 예제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인 건축물의 배치는 우리나라의 토착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6)</sup>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환구단의 좌향을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이 종묘는 癸坐丁向으로 正南에서 西로 22.5도 범위에 있다. 환구단은 壬坐丙向으로 正南에서 東으로 22.5도 범위에 있다. 사직단은 戌坐辰向으로 正南에서 東으로 67.5도 범위에 있어 상당히 동쪽으로 치우친 모습



〈그림 19〉 羅經佩鐵과 坐向

55) 『論語集註大全』卷15 「衛靈公」, 4장 : 治者 … 恭己正南面而已矣.

56) 김동욱, '앞의 책', 30쪽

이다. 이와 같이 종묘와 사직, 환구단의 坐向은 무조건 南向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고, 지형조건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坐向을 선택하고 있다.

『周禮』「天官」에는 “제왕이 국도를 건설할 적에 방위를 분별하여 바르게 했다.”<sup>57)</sup>고 하였다. 또한, 『簡易文集』에도 “상고 시대부터 국도를 건설할 적에 방위를 바르게 분별해서 건물의 터를 잡는 예를 어기지 않았다”<sup>58)</sup>고 하여 방위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였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풍수논리에 근거한 形勢論과 理氣論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형세론에 의한 좌향의 선택은 입수룡의 흐름방향에 순응하는 主山順應形과, 입수룡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형상의 案山을 선택한 案山重視形, 그리고 입수룡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특히 아름다운 案山을 선택한 主·案山混合形<sup>59)</sup>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종묘는 主山順應形이고 사직단은 案山重視形이며 환구단은 主·案山混合形으로 형세적 좌향을 선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理氣論에 부합하는 좌향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형세론과 부합하는 범위에서 좌향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조선시대를 통틀어 흥미한 胡舜申의 『地理新法』은 河崙(1347-1416)에 의해 新都岸이 도읍지로 불가함을 주장하는데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관선발시험의 과목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조선중기에 領議政을 지낸 象村 申欽(1566-1628)은 자신의 문집에서 “우리나라는 지리에 대해 오로지 胡舜申의 법만을 사용한다”<sup>60)</sup>고 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다.

57) 『周禮』「天官」冢宰：惟王建國 辨方正位.

58) 『簡易文集』卷5 「槐院文錄」咨宋經略：竊照上古建國設都 不越辨方正位 而胥宇卜宅 益涉吉凶.

59) 박정해 「書院建築의 坐向 決定과 風水의 要因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19, 한국 건축역사학회, 2010, 51쪽, 53쪽, 54쪽

60) 『象村集』卷34 「風水家說」：我國地術專用胡舜申.

〈표 10〉 地理新法 適用與否 檢討

區分	入首龍	大五行	坐向	得水			破口			附合 與否		
					胞胎	九星	吉凶		胞胎		九星	吉凶
宗廟	丑	土	癸坐丁向	戊	衰	左輔	吉	丙	胎	祿存	凶	○
社稷壇	乾	金	戌坐辰向	辛	輔弼	武曲	吉	乙	胎	祿存	凶	○
圜丘壇	壬	火	壬坐丙向	丁	官	武曲	吉	卯	病	廉貞	凶	○

〈표 10〉과 같이 먼저 종묘의 입수룡을 대오행으로 분류하면 丑龍은 土局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리신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水法論과 부합여부를 살펴본다.

호순신 水法理論의 핵심은 ‘물은 吉方에서 와야 하고 凶方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종묘에 대한 호순신의 水法을 적용해 보면, 土局에서 戌方은 胞胎法으로는 衰에 해당되고 九星은 左輔에 해당되며, 丙 과구는 포태법으로는 胎에 해당되고 九星은 祿存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해 보면, 사직단과 환구단도 〈표 10〉과 같이 지리신법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 초기의 祭禮建築인 종묘와 사직단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건설된 환구단도 지리신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朝鮮王朝實錄』과 『象村集』에서 胡舜申의 地理新法이 적극 사용하였다고 말한 부분을 확인시켜준다.

#### IV. 맺음말

宗廟와 社稷을 국가라 인식하고 국가의 존망과 직접 연결시키는 상황에서, 宗廟와 社稷壇은 『周禮』「考工記」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건설하고

國家大祀로 규정하여 제사하였다. 또한, 『禮記』「祭法」에는 ‘천자는 七廟를 제후는 五廟’라는 규정을 통해 위계와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교적 질서와 위계의식은 입지선정과 공간구성에 반영되었으며, 풍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종묘와 사직단, 환구단의 입지선정과 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좌향 결정에 활용되었다.

『朝鮮王朝實錄』과 『宗廟儀軌』 그리고 『承政院日記』는 종묘와 사직단, 환구단 입지가 풍수에 의해 선정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환구단 입지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大祀라는 위상에 걸 맞는 길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神聖한 장소라는 象徵性和 부합하는 모습이다.

둘째, 입지구성의 배경에 天·地·人 삼합사상의 논리를 반영하였다. 즉, 하늘의 道와 땅의 道 그리고 사람의 道를 구성한 공간을 완성하였다.

셋째, 漢北正脈의 정기를 받은 서울 보국 안에 입지하고 있으나, 鷹峰과 仁王山 그리고 南山을 主山으로 각각의 입지를 형성하였다.

넷째,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배치를 실현하였다. 자칫 陰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는 『靑鳥經』에서 “內氣는 생명을 싹트게 하고 外氣는 형상을 이룬다”<sup>61)</sup>는 논리와 부합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환구단의 입지는 풍수적 관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단순히 길지를 찾고 건설한 것이 아니고 풍수를 구성하는 형세론과 이기론적 관점에서 세세하게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산과 안산은 穴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세적 관점에서 볼 때 제일 먼저 검토된다. 따라서 종묘의 주산은 武

61) 『靑鳥經』: 內氣萌生 外氣成形.

曲 金星體의 鷹峰이고 사직단은 武曲 金星體의 仁王山자락이다. 환구단의 주산은 貪狼 木星體의 南山으로 안산을 겸하는 回龍顧祖形이다.

둘째 주룡은 혈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透迤와 起伏하며 활발하게 행룡하는 生龍을 요구한다. 또한, 충분한 행룡의 과정을 거쳐 험하고 거친 기운을 벗고 아주 부드럽고 순한 龍으로 剝換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이다.

셋째, 풍수가 추구하는 최종점이라 할 수 있는 혈처에 입지한 건축물은 정체성을 대변한다. 종묘의 穴處는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正殿에 해당한다. 사직단은 社壇과 稷壇 중에서 稷壇을 園丘壇은 3단의 단이 해당한다. 이는 전통적인 昭穆制度와는 다른 모습으로 『茶山詩文集』「論」은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입증한다. 社稷壇의 경우에는 곡식신을 모시는 稷壇을 혈처에 배치하고 있어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배려가 보다 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환구단도 하늘에 제사지내는 단을 혈처에 입지시켜 환구단의 건립목적에 충실한 모습이다.

넷째, 경관과 음양교배에 필수적인 물길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물은 움직임이 있어 자칫 陰의 기운이 강한 祭禮 建築物의 공간구성에 활력을 제공하는데 특히 景觀作用과 함께 審美價値를 가져 풍수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 또한 天人合一의 이상에 의지하여 사람과 자연이 화합하고 공존한다는 정신과도 일치한다.

다섯째, 좌향은 남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과 지형조건에 부합한 선택을 하였다. 종묘는 癸坐丁向으로 正南에서 西로 22.5도 범위에 南南西向을 하였다. 환구단은 壬坐丙向으로 正南에서 東으로 22.5도 범위에 있다. 사직단은 戌坐辰向으로 正南에서 東으로 67.5도 범위에 있어 상당히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여섯째,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환구단은 지리신법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시에 유행한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활용한 항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조선왕조를 풍미한 호순신의 지리신법은 조선초기의 제례건축물인 종묘와 사직단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건설된 환구단도 지리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환구단의 입지는 풍수적 관점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선의 대표적인 제례건축물인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환구단의 입지선정은 전통적 입지관이라 할 수 있는 풍수에 바탕을 두고 길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正宮인 景福宮과 서울文廟 등 조선 초기에 입지선정과 건설이 이루어진 중요건축물의 입지선정 기준과 부합하는 모습이다. 主山을 중시하고 陰陽의 논리에 부합하는 공간구성과 『地理新法』의 水法論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요건축물을 혈처에 입지시키는 모습 또한 같다.

## 【 참고문헌 】

- 『簡易文集』
- 『管子』
- 『論語集註大全』
- 『孟子』
- 『發微論』
- 『白沙別集』
- 『象村集』
- 『說文解字』
- 『荀子』
- 『承政院日記』
- 『禮記』

『朝鮮王朝實錄』

『地理新法』

『靑鳥經』

『弘齋全書』

강문식, 이현진, 『宗廟와 社稷』, 책과 함께, 2011. 165쪽, 168쪽

郭璞 著,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83쪽

김동욱, 『宗廟와 사직』, 대원사, 2005, 8-9쪽, 23-24쪽, 30쪽

金富軾 著, 이병주 역,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91, 158쪽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1996, 24쪽

박정해, 「書院建築의 坐向 決定과 風水의 要因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19, 한국 건축역사학회, 2010, 51쪽, 53쪽, 54쪽

박정해, 「조선 유교건축의 풍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2, 101-102쪽

박정해, 한동수, 「書院立地の 水勢論 分析」 『역사 민속학』3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260-261쪽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 武陵出版社, 1971, 130쪽, 133쪽

徐善繼 徐善述 著, 김동규 역, 『地理人子須知』, 명문당, 1992, 448-471쪽, 626쪽

孫正高, 『풍수지리해설집』, 신지서원, 2002, 154쪽

楊均松 著, 남궁승 역, 『撼龍經·疑龍經』, 대훈닷컴, 2009, 57쪽, 222쪽

楊筠松 著, 김두규 역, 『撼龍經·疑龍經』, 비봉출판사, 2009, 259쪽

王其亨 等, 『風水理論研究』 『古城閣中風水格局』, 中國 天津大學出版社, 2005, 71쪽

유영남, 「제례건축과 조형 공간적 의미구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쪽, 41쪽

李龍徽, 『地理要訣』, 소금나무, 2006, 303쪽

장영훈, 『서울풍수』, 담디, 2004, 140쪽

張益鎬, 『龍水正經』, 종문사, 1989, 60-61쪽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105쪽, 185쪽, 251쪽

胡舜申 著, 김두규 역, 『地理新法』, 비봉출판사, 2004, 75쪽, 218쪽

한국고전번역원 종합DB(<http://db.itkc.or.kr>)

Abstract

## Positional Environment of Feng shui in Jongmyo, Sajikdan and Hwangudan

Park, Jeong-Hae

Jongmyo(宗廟, Royal Ancestral Shrine) and Sajik(社稷, an altar to the State deities) had the most important memorial ceremony. So they were constructed and maintained with the best effort. The Principle of Jwa-myo-woo-sa(左廟右社) which was to set Jongmyo to the western part and Sajik to the eastern part in ancient oriental city plan had been an important standard for selection of location.

As a result, the location of Jongmyo, Sajikdan and Hwangudan shows the features of both views on Feng shui; the theory of geomantic topography of the situation(形勢論) and the theory of Li and Ch'i(理氣論). However, it looks that the former is more superior than the latter. Especially, although Jongmyo had lower rank of national rite than Sajikdan, it was regarded as actually important facility and it took better place. And Hwangudan that was construc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might have not so many alternative sites to build it up. But it also shows the best location.

### Key Word

Jongmyo(宗廟), Sajikdan(社稷壇), Hwangudan(圓丘壇), Feng shui, Selection of location, the architecture of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 논문투고일 : 2012.12.26. 심사완료일 : 2013.2.12. 게재결정일 : 2013.2.13.